**[와이즈인베스트먼트]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마케팅**

**성장과정**

정치관련 일을 하신 정의롭고 인자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S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엘리트답게 옳은 것을 알고 실천하는 지식인이셨고, 어머니도 이희호여사 밑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한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그 영향 때문에 저도 학창시절에는 왕따를 당하는 아이편에 서서 도와주었고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렸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책을 읽으며 동산을 산책하며 시를 짓기도 하는 등 자연과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청소년갱생보호공단의 부녀회장이셨던 어머니를 따라 소년원출소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기관을 3년동안 매주 방문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어려운 이를 돕는 자세를 보고 세상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귀하며 사 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았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임을 일찍이 알았습니다.그래서 A대학교 청소년학과를 왔고, 많은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법을 알면 더 실질적인 인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 법학과를 복수전공하며 사법고시를 공부했습니다. 3년을 열심히 공부했으나 집안사정을 돕고자 생계전선에 열중하다 보니 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꾸준히 하고 싶은 여러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하며 매순간을 알차게 보내고 기회를 잡고자 준비중인 청년입니다.

**성격의 장단점**

저를 믿고 존중해주신 부모님 덕에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립심이 있고 생활력이 강합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화장품가게, 콜센터, 캐디, 서빙, 고시원총무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경험으로 적금을 하고 학비와 자취생활 하면서 생활비를 제 힘으로 해결했습니다. 최근 어머니의 인공관절수술도 해드렸습니다. 또한 추진력이 강해서 일처리가 빠르고 센스있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치밀한 성격이라 주어진 일을 완벽히 끝내는 것이 제 강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사장님들은 절 믿고 가게의 모든 일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닥 좋지 않은 머리로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만큼 끈기가 있고 진취적입니다. 주위 분들이 염려할 만큼 여러 고생들을 해왔지만 그것들이 깊이 있는 저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고 젊어서 고생은 앞으로도 사서라도 할 것입니다.

제 큰 장점 중 하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곧잘 저에게 크고 작은 비밀을 털어놓곤 합니다. 의리와 배려가 있어서 한번 믿어준 사람은 절대 먼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신의를 주고받으면 쉽게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제 장점입니다.

허나 단점이 있습니다. 어릴적 엔 고집이세서 남의 말을 잘 안 들었지만 살다 보니 남의 말 어른말이 틀린 것이 없다 생각되어 지금은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이라 하면 믿고 맡겨주십니다. 그만큼 신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제가 고집한 일에서 잘해내야겠다는 책임감도 크지만, 잘 되었을때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쁩니다. 잘되지 않는다 해도,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즐겁고 후회가 없기 때문에 크게 결과에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지원동기 및 포부**

아직은 제 스펙이 다른 청년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전 학창시절부터 책을 통해 생각을 넓혀왔고, 최선을 다해 공부해왔습니다. 대학시절 사시공부를 거쳐 법적 지식도 풍부하며 그 후 다양한 아르바이트, 청소년 봉사활동, 아버지의 선거운동 등 사회 경험이 많은 가능성 많은 청년입니다. 현재는 어학공부와 자격증공부로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인만큼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도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리가 있어 한번 믿어준 사람은 쉽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일하든 누굴 만나든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

중학교 때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었는데 그때 친한 친구들이 그 아이랑 계속 놀거면 우리랑도 놀지 말아라, 했을 때도 제가 옳다고 생각한 것은 그 친구의 편에 서는 것이라 생각 하였기때문에 그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선생님께 고발하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린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왕따 행동에 동조하지 않는 저를 답답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허나 돌아보면 제 선택에 그 왕따 친구가 가슴속에 훈훈한 자기편 하나가 생겼고, 저 스스로 참 용기있었다. 라는 자부심과 옳지 않은일에 동조하지 않은 용기. 그건 굉장히 뿌듯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옳은 길을 가는 것은 힘든 길이란 것을 알았고, 세상사람들이 따뜻하지만은 않다 느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안가 그 친구들이 저를 이해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의는 끝내 이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력사항 (혹은 업무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경험사항)**

사법고시 공부를 하며 고시원 총 관리를 했었는데, 그때 영업능력이 뛰어나서 고객들을 잘 모으고 유지해서 늘 "만실"이었습니다. 또 콜센터에서 영업 아웃바운드를 할 때도 실적1위를 자주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일에나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매료 시킨다는것은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영업이나 수익성을 내는 업무나 직원이나 고객들을 끝까지 우리 회사편, 내편이 되도록 잘 아우를 수 있는 업무가 있다면 자신이 있습니다. 꼭 고객관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무가 주어진다 해도 저의 특유한 열정과 추진력 있는 열정으로 제 능력을 십분 발휘하겠습니다. 청소년학과와 법학과를 복수전공하면서, 역시 어려운 이들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거나 상담하며 보람을 얻는 일이 제 천직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주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고객센터나 콜센터를 택했고 고객분들게 특히 어르신들께도 칭찬콜을 많이 들었으며, 빠른 일처리, 친절한 말투, 알아들을 때까지 끈기 있게 정보를 전달하는 참을성으로 상사분들께도 인정받아 이직하실 때 다른 콜센터에 절 데려가려고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키는 것만하고 일을 스스로 찾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장점인 자기주도적인 자세로 늘 일을 찾아, 배우며 스스로를 다듬어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이나 법쪽으로 가진 저의 지식과 경험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는 것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여러 정보를 활용해서 알아내겠습니다. 또한 사람관계가 제일 중요한 만큼, 항상 예의 바른 신입사원이 될 것을 약속 드리며, 상사분들이나 선배분들게는 애교있는 부하직원이 되고, 동료들에겐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상쾌한 엔돌핀같은 직원이 되겠습니다.